

매운맛에 푹 빠진 중국 대륙

베이징지사

젊은 소비자들, 매운맛에 주목하다

- 2018 중국 조미료 업계 청서(2018全国调味品行业蓝皮书)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매운 음식을 섭취하는 인구는 25억 명을 돌파했으며 고추 거래액은 2,873억 위안(한화 약 47조 4천억 원)에 육박했다. 특히 최근 중국 시장에서 매운맛은 가장 뜨거운 식품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난해 중국 조미료 시장에서 매운맛 조미료의 점유율은 30.88%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 중국 소비자들 중에서도 특히 1980~1990년대에 출생한 젊은 소비자들의 매운맛 선호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추 안에 들어있는 캡사이신 성분은 활발한 대사작용을 일으켜 지방연소를 돕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용과 다이어트에 민감한 젊은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고추소스의 시장규모 증가세 뚜렷

- 「중국음식보고서 2018(中国餐饮报告2018)」에 따르면 샤오츠(小吃·간단한 먹거리) 및 패스트푸드류 구매가 지난해 전체 음식 소비액의 63%를 차지하며, 중국에서 판매된 음식 중 마라탕(麻辣烫·사천식 매운 탕에 여러 재료를 넣어 끓여 먹는 음식) 매출액이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라탕은 온라인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직장인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주문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 중국의 일반 가정과 식당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고추소스(고추 가공품에 기름을 섞어 만든 중국식 고추장)는 최

근 중국의 매운맛 열풍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고추소스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7% 증가해 320억 위안(약 한화 5조 3천억 원)에 육박했으며, 2020년 말에는 400억 위안(약 한화 6조 6천억 원)에 도달할 전망이다.

- 중국조미료협회에 따르면 고추소스를 비롯한 매운맛 조미료는 현재 중국 식품시장의 대표적 인기 품목으로 이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급화 추세도 발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매운맛 조미료와 매운맛 식품의 유행은 건고추 업종의 호황까지 이끌어내고 있을 뿐 아니라 고추소스 생산 설비, 캡사이신 추출 장비, 고추기름 가공장비업계의 호황까지 가속화시키고 있다.

매운맛 트렌드 겨냥해 적극 진출 모색해야

- 최근 몇 년간 중국 젊은 소비계층에서 유행하고 있는 매운맛 소비 트렌드는 한국 식품업계에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매운맛으로 유명한 삼양식품의 '불닭 볶음면'은 최근 몇 년간 한국라면 대중 수출을 견인하였으며, 매운맛 라면이나 식품을 먹는 동영상은 최근에도 중국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음식을 먹으며 매운맛을 혀로 즐기고 SNS로 공유하며 눈으로도 즐기는 중국 젊은 소비계층을 공략할 수 있는 한국 매운 식품의 중국 진출이 필요한 때이다.